

學術調查報告 8冊

龍仁 駒城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金性泰·蘇相永·李 植

2000

畿甸文化財研究院
大韓住宅公社 京畿地域本部

* 표지사진
윤영 묘소 석양

目 次

I. 머리말	7
II. 주변환경	9
1. 자연지리적 환경	9
2. 고고학적 환경	9
III. 조사내용	12
1. 고고·유교유적	12
1) 고고유적	13
2) 유교유적	13
3) 기타유적	13
2. 민속	15
1) 조사개요	15
2) 조사내용	17
3) 소결	27
IV. 맺음말	28

도면목차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8
도면 2. 구성지구 현황도(1/10,000)	10

도 목차

도 1. 청덕리 산신제 진설도	22
도 2. 임명순 가계도 및 공간활용 정도	23
도 3. 이병희 가계도 및 공간활용 정도	24
도 4. 이병희 씨택의 여름철 식단의 예	25

사진목차

사진 1. 구성지구 전경	32
사진 2. 청덕리 유물산포지 1 전경	32
사진 3. 청덕리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33
사진 4. 윤염 묘소 전경	33
사진 5. 윤염 묘소 고석과 향로석	34
사진 6. 윤염 묘소 장명등	34
사진 7. 윤염 묘소 석양	35
사진 8. 윤염 묘표	35
사진 9. 윤염 계배 한양조씨 묘표	36
사진 10. 윤행업 묘소 전경	36
사진 11. 윤행업 묘표	37
사진 12. 처녀 윤씨 묘소 전경	37
사진 13. 윤섬 정려문	38
사진 14. 윤계 정려문	38
사진 15. 노거수	39

사진 16. 청덕재 정문	39
사진 17. 청덕재의 전사청	40
사진 18. 청덕2리 산신당 측면	40
사진 19. 청덕2리 산신당 정면	41
사진 20. 청덕2리 산신당 및 샘물	41
사진 21. 임명순 가옥 마루	42
사진 22. 임명순 가옥 건넌방 측면	42
사진 23. 임명순 가옥 수도와 세탁기	43
사진 24. 임명순 가옥 창고(원래 축사였음)	43
사진 25. 임명순 가옥 대문정면	44
사진 26. 임명순 가옥 대청마루 뒷편의 농기구	44
사진 27. 이병희 가옥 정면	45
사진 28. 이병희 가옥 부엌	45
사진 29. 이병희 가옥 뒷면	46

I. 머리말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구성지구)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0년 5월 25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용역계약을 맺고 2000년 5월26일부터 7월 20일에 걸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면적은 1,252,000㎡(378,730평)로 해발 70~150m 내외의 구릉지대에 두개의 자연부락과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 농경지가 자리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고고, 민속의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고고분야는 문헌조사와 주변지역의 유적 분포현황과 지형으로 볼 때 선사유적, 고분(고려시대), 건물지, 유교유적(조선시대분묘, 사당)의 발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조사 결과 조사지역 서쪽의 평지는 이미 복토되었고, 북쪽의 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지형이 크게 변경되어 별다른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조사결과 발견된 유적은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1개소, 유교유적 5개소, 기타유적 2개소이다.

민속분야는 마을 주민과의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택지개발로 인해 변화될 이 지역의 민속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기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이 지역의 민속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다. 최근 골프장의 건설과 외지인의 유입으로 마을의 모습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산신제를 비롯해 많은 전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부담하였으며, 관계된 모든 자료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금번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고고분야

책임조사원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소상영(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민식(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윤승희(성균관대 대학원)

윤명준(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년)외 2명

○민속분야

조 사 원 : 주영하(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겸임교수)

조 사 원 : 이화여대 대학원생 3명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은 장경호의 지휘아래 김성태가 총괄하여 고고분야는 소상영, 유교분야는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및 주변 유적 분포도

이민식이 담당하였다. 사진은 소상영이 촬영하였으며, 유물의 세척과 마킹 제도편집은 윤승희, 윤명준이 담당하였다. 본문은 소상영, 이민식이 작성하여 이를 김성태가 검토한 후 장경호가 최종 수정, 가필하였다. 민속분야는 주영하가 현장조사 및 원고를 작성하였다.

Ⅱ. 주변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용인시는 지리적으로 동경 238° 10' ~ 201° 30', 북위 398° 30' ~ 430° 10' 에 걸쳐 있다. 동쪽은 이천시·광주군, 남쪽은 안성시·평택시, 서쪽은 수원시·화성군·시흥시, 북쪽은 성남시·광주군에 접해 있다.

용인시는 광주산맥의 지맥이 기복하여 각처에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변의 인접도시를 내려다보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 하천은 남북주향의 단층을 따라 흐르는데, 주요하천으로는 탄천, 금령천, 구흥천, 청계천, 신갈천 등이 있다. 하천을 따라 충적지대가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 농경지는 주로 얇은 구릉상에 계단식으로 경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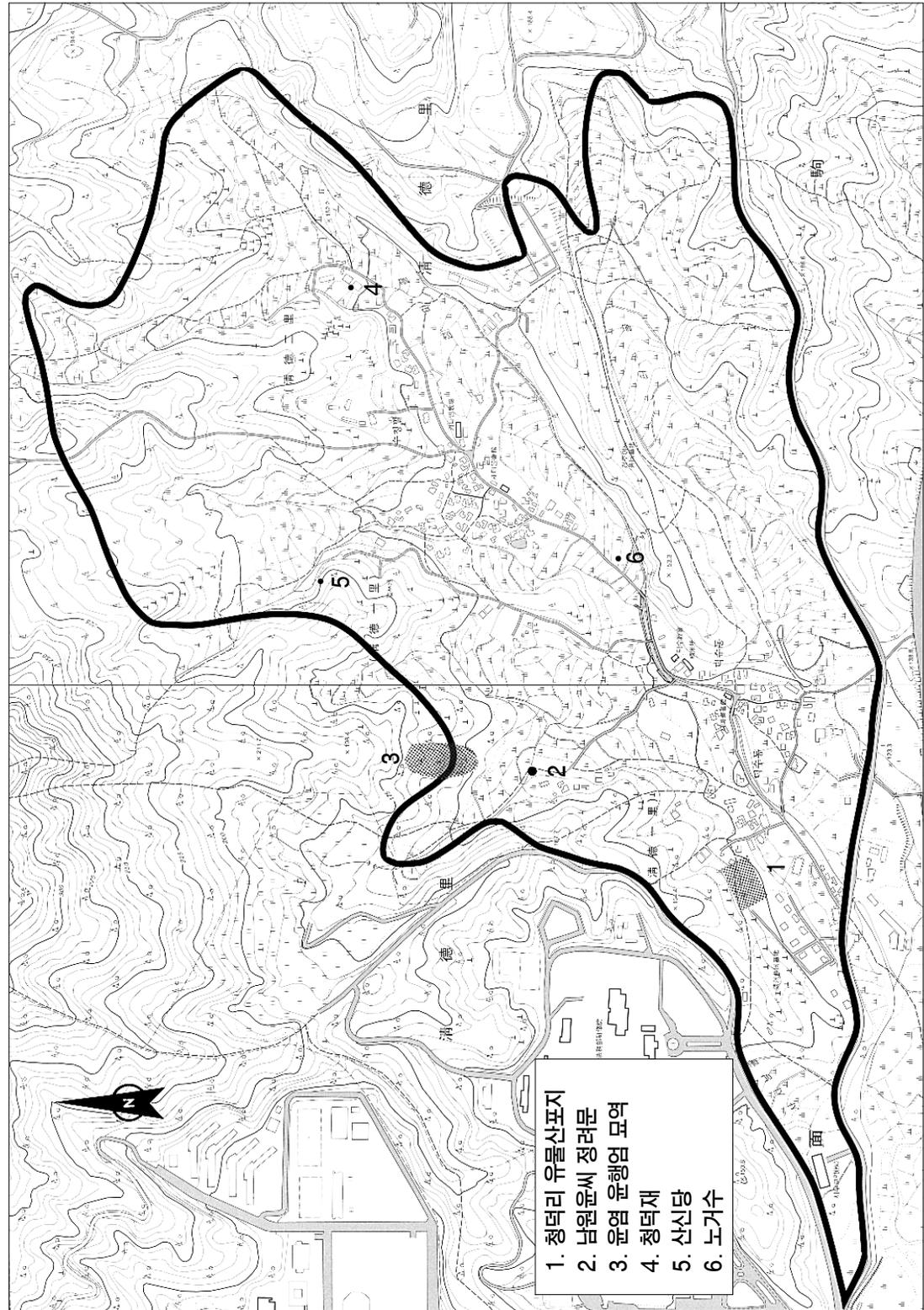
조사지역이 위치한 구성면(구성면은 2000년 9월1일자로 읍으로 승격 예정이다)은 용인시의 서부지역에 해당한다. 구성면 일대는 탄천과 오산천의 영향으로 넓은 하곡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하곡지를 중심으로 촌락이 발달되어 있다.

구성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 1, 2리 일대에 해당한다. 지형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법화산(해발 385m)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발달한 구릉지대로 마을의 입구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넓고 높은 구릉지대가 나타난다. 조사구역의 남쪽경계는 393 지방도와 연결되어 88컨트리클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경계로 하고, 서쪽은 범무연수원, 북동쪽은 구릉의 능선상을 경계로 한다. 따라서 조사구역은 청덕 1, 2리 마을과 구릉의 남동, 남서 경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도면 2 참조)

해발고도는 70~150m 내외로 오랫동안의 풍화, 침식을 받아 경사가 완만한 산록을 갖는 저구릉성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구릉정상에서 남북으로 실개천이 흐르는 것을 제외하고 주변에 큰 하천은 없어 하천의 영향으로 형성된 지형은 거의 없다. 토양은 구릉성 암쇄토(마사토)와 약간의 점성이 있는 적색토가 대부분이며, 충적토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2. 고고학적 환경

용인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대부터 도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



도면2. 구성지구 현황도 (1/10,000)

인 지표조사는 1988년에 국립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¹⁾. 조사단은 기존에 알려진 유적을 재확인하고 하천변과 작은구릉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유적도 발견 보고하였다. 용인시의 문화유적이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1996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서이다²⁾. 이 조사에서는 모두 85개소의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5개소의 구석기유적이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용인시의 문화유적이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국토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아파트 공사와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형이 변모하여 많은 유적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지표조사가 시행된 구성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요유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상하리 지식묘³⁾

구성면 상하리 387번지에 위치한다. 현재상석은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로 장축은 동서향이 며, 크기는 길이 313cm, 폭 295cm, 두께 100cm 이다. 지식묘의 형식은 북방식으로 두 개의 지식아 남아 있다.

2)마북리 토기산포지⁴⁾

마북리 520-9번지일대의 야산에 위치한다. 이 야산의 중턱에서 회색 연질의 細蓆文土器 수 점이 채 집되었다. 이 토기들은 한신대학교에서 발굴 조사한 백제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백제토기로 판단된다.

3)마북리 하늘말 고분군⁵⁾

단국대학교 신캠퍼스가 건설된 예정인 마북리 하늘말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석곽묘 7기, 토광묘 2기등 모두 9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이중 연도가 달린 석곽묘 2기는 통일신라시대, 나머지 석곽묘와 토광묘는 고려시대 고분이다. 대부분의 고분이 도굴당해 유물은 많지 않으나, 인화문토기, 청자, 청동수저 등이 출토 되었다.

4)마북리 고려고분군⁶⁾

마북리 산 46-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경기도 박물관에서 시행한 마북리 정광지구 문화 유적 지표조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1997년에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토

1) 국립중앙박물관, (1988), 『신암리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pp67~105.
 2)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 『용인시의 문화유적』.
 3) 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1998),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p13.
 4)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6), 『앞의 보고서』, p29.
 5)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 연구소, (1997), 『용인마북리 유적』,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유적조사보고서 1.
 6) 김성태, (1997), 「용인 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97 경기도 박물관 발굴조사개보』.

광묘 4기와 석곽묘 4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대접, 접시, 반구병, 유병 등의 청자류와 거울, 손가락 등의 청동기류가 출토되었다.

5) 동백리 토기산포지⁷⁾

이 유적은 동백리 어정초등학교 뒷밭 일대에 위치하는 고려시대의 토기산포지이다. 출토유물은 파수 3점과 다수의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파수는 우각형파수의 변형으로 위로 굽어진 ‘ㄴ’ 자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 되어진 것이나, 주변의 채집유물이 모두 고려토기인 점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6) 보정리 1호 도요지⁸⁾

보정리 독정마을이 끝나는 지점의 나즈막한 구릉상에 위치한다. 유적의 범위는 약 200평 정도이며, 11세기대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청자 백자 도요지이다. 유물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는 백자편과, 완과 호가 주류를 이루는 청자편이 다수 채집되었다. 소로공사와 아카시아 나무 식재로 인해 유적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전체적인 유적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이외에도 분묘 조성시에 타제석기와 마제석부가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보정리 연원부락, 조선시대 건물지와 석곽묘, 토광묘, 회곽묘, 가마터가 확인된 언남리 유적, 송나라 어문청자가 출토된 마북리 사지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Ⅲ. 조사내용

1. 고고·유교유적

조사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일대이다. 면적은 1,252,000㎡(378,730평)으로 조사지역의 서쪽에는 법무연수원과 경찰대학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조사지역은 해발 70~150m내외의 구릉지대로 덕수동과 수청말이라는 자연부락이 입지하고 있으며,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논과 밭이 계단식으로 경작되고 있다.

조사지역이 최근 고려시대 고분군과 사지가 발견된 마북리와 인접해 있고, 지형과 주변의 입지조건도 고분군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현장답사 결과 조사지역 북쪽의 구릉

7)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 『앞의 책』, p31.

8) 용인시 외, (1999), 『용인의 도요지-지표조사보고서』, 용인시사총서 3.

경사면 일부를 제외한 지역은 이미 지형이 크게 변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1개소와 유교유적 4개소만이 확인되었다.

1) 고고유적

(1) 청덕리 유물산포지(사진 2, 3)

□ 소재지 : 청덕 1리

□ 시 대 : 조선

□ 종 류 : 유물산포지

법무연수원에서 88골프장으로 가는 도로를 타고 가다 청덕리로 들어가는 도로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 있고 서쪽으로 淸洞共同墓地가 조성되어 있다.

유적은 현재는 경작되지 않는 밭에 위치하고 있다. 약 500평 정도의 면적에서 백자와 조선시대 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 그러나 이미 생토면이 드러날 정도로 지형이 파괴되었고, 유물의 분포밀도도 희박하여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 추가조사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유교유적

청덕리 덕수동 마을의 뒤쪽에 위치하는 法華山(395m)의 남쪽 줄기에 南原尹氏 세장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묘역의 제일 상단에는 龍恩君 尹琰의 묘소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아들 守默堂 尹行儼과 處女 尹氏의 묘소가 있다. 또한 후손 尹龍雲씨 태의 사당에는 文烈公 尹暹과 忠簡公 尹啓의 旌閭門이 안치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윤용운씨 태의 좌측 산자락에 있었던 文憲公 尹行恂(1762-1801)묘소는 김포로 이장되었다.

(1) 尹琰 묘소(사진 4~9)

□ 소재지 : 청덕1리

□ 시 대 : 조선

□ 종 류 : 선현묘역

尹琰은 龍安君 宗柱의 아들로 자는 仲玉이고 自號는 退巖이다. 관직은 世子翊衛司翊贊에 이르렀으며 사후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龍恩君에 봉해졌다. 묘역(사진 4)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석양, 망주석, 장명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는데, 상석을 받치고 있는 팔각형의 고석(사진 5, 높이 35cm)이 독특하고 중앙에 놓인 장명등(사진 6, 높이 215cm)은 장식이 화려하며 좌우에 서 있는 석양(사진 7, 높이 60cm)은 조각이 매우 사실적이다. 봉분의 좌측에는 정조대에 크게 유행하던 方趺蓋石 양식의 윤염 묘표(사진 8, 총높이 약 230cm)가 건립되어 있다. 表題를 마련하지 않았으나 오석의 비신(높이 146cm) 상단에 贈吏曹參判龍恩君行世子翊衛司翊贊墓表라고 전액을 올려 비석의 종류가 묘표임을 밝히고 있

으며 '聖上14年庚戌(1790, 정조14) 6月 日'에 男 廣州府尹 行恉이 表하였다. 또한 비신의 우측에 새겨진 추기도 男 行恉이 追記하였다. 비문은 顏眞卿의 勁壯重 해서체로 써 내려 갔으며 상태는 완벽하다. 한편 묘역의 우측에도 방부개석 양식을 갖춘 繼配 漢陽趙氏(1726-1798)의 묘표(사진 9, 총높이 144cm)가 세워져 있다. 오석의 비신(높이 83cm)에 前面大字로 '貞敬夫人漢陽趙氏之墓'라 쓴 뒤 좌우와 뒷면에 陰記를 각자하였다. 음기의 말미에는 아들인 行恉이 撰하고 아울러 敬書하였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윤엄 묘소는 정조대에 조성된 사대부 묘소의 전형으로 조선시대 묘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 尹行儼 묘소(사진 10, 11)

- 소재지 : 청덕1리
- 시 대 : 조선
- 종 류 : 선현묘역

윤행엄 묘소(사진 10)는 아버지 엄의 묘소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는데, 양식상 정조대 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팔각망주석(높이 164cm)에는 아무런 문양도 장식되지 않았고, 향로석(높이 51.5cm) 하단에는 직사각형의 받침석을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봉분의 좌측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사진 11, 총높이 약 219cm)가 건립되어 있다. 오석의 비신(높이 129.5cm) 상단에 전액을 '淸州牧使守默堂尹公墓表'라 올려 비석의 종류가 묘표임을 밝히고 있으며 表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음기는 弟 前任吏曹參議 行恉이 述而書하였으며 입석연대는 '皇明永曆後3己未(1799, 정조23)仲春'이다.

(3) 處女 尹氏 묘소(사진 12)

- 소재지 : 청덕1리
- 시 대 : 조선
- 종 류 : 선현묘역

윤행엄 묘소 아래에는 처녀 윤씨의 묘소(사진 12)가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옛 상석 하나가 단출하게 놓여져 있으며 봉분의 좌측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아담한 묘표가 세워져 있다.

화강암을 다듬어 사용한 비신(높이 88.5cm)의 전면 중앙에는 大楷로 '處女尹氏墓'라고 쓰여져 있으며 그 좌측 아래에는 小楷로 '弟 行恉 題'라 附記하였다. 음기와 건립연대는 새기지 않았으나 묘표의 양식이나 글씨의 필체로 보아 尹行恉 생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보다 먼저 돌아간 누님을 위해 동생인 行恉이 묘표를 세우고 묘역을 단장하였는데, 조선시대 분묘 중에서 이같은 예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한다.

(4) 남원윤씨 정려문(사진 13, 14)

- 소재지 : 청덕1리 268번지
- 시 대 : 조선
- 종 류 : 정려문

청덕리 덕수동 마을 268번지 尹龍雲씨 맥의 사당 처마 밑에는 文烈公 尹暹와 忠簡公 尹啓의 旌閭門 현판이 걸려 있다. 윤섬의 정려문 현판(사진 14)에는 '有明朝鮮忠臣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龍陽府院君諡文烈公行翰忠翼謨修紀光國功臣通訓大夫弘文館校理尹暹之門 崇禎紀元後乙酉(1705, 숙종 31)9月 日 重修'라고 음각한 뒤 흰색으로 덧칠을 해 놓았다. 또한 윤계의 정려문 현판(사진 15)도 동일한 방법으로 '有明朝鮮國忠臣 贈資憲大夫吏曹判書龍原君諡忠簡公行通訓大夫弘文館應教尹啓之門 崇禎紀元後乙酉(1705, 숙종31)9月 日 重修'라고 하여 같은 시기에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尹暹(1561-1592)은 임진왜란때 巡邊使 李鎰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과 싸우다가 尙州城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그 손자인 尹啓(1583-1636)는 南陽府使에 재직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勤王兵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다가 淸軍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충신이다.

3)기타유적

(1)청덕리 느티나무(사진 15)

- 소재지 : 청덕1리
- 시 대 : 조선
- 종 류 : 기타(노거수)

청덕 1리와 청덕2리의 경계가 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위치하고 있다. 수종은 느티나무로 마을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수령은 약 600년 가량 된다고 한다. 나무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철사로 윗부분을 묶어놓았다. 현재 내부가 크게 비어있는데 보호수로 지정한 후 외과수술 등의 보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민속

1) 조사 개요

(1) 조사지역 개관

옛 문헌자료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의 용인시는 대략 용구현(龍駒縣)·처인현(處仁縣)·양지현(陽

智縣)의 통폐합에 따라 그 변천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⁹⁾.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 지역의 하나인 구성지가 속한 구성면(駒城面)은 본래 고구려의 구성현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신라 경덕왕 때는 거서로, 고려 초에는 용구현으로 불리다가 조선 태종 13년(1413)에 처인현과 합쳐 용인현이라 했고, 치소도 그 곳에 두었으며 정5품의 현령이 관장하였다¹⁰⁾.

구성지역에 해당하는 구성면 청덕리(淸德里)는 본래 용인현의 동변면(東邊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수청동(水淸洞)·덕수동(德水洞)과 읍내면의 언동(彦洞) 일부를 합쳐 이루어졌다. 마을의 명칭은 수청동과 덕수동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를 따서 청덕리라 하였다. 현재는 원래의 덕수동을 청덕1리, 수청동을 청덕2리로 구분하여 행정적으로 소속되어 있다. 청덕1리에 해당하는 덕수동은 다른 말로 '덕수' 혹은 '덕수굴'이라 부른다. 또 마을사람들은 '덕굴'·'금다락굴'이라고도 일컫는다. 마을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옛부터 이곳에 맑고 푸른 물이 있어 이 물을 덕수라 하였기 때문에 덕수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덕수는 큰 물의 뜻으로 이곳이 물과 관련이 있는 지역임을 밝힌다. 청덕2리에 해당하는 수청동은 다른 말로 '물푸레울'이라고 불린다. 원래 물푸레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물이 맑고 항상 푸르게 흘러내리므로 '물푸른'에서 시작된 말이 '물푸레'라는 말로 변했다는 주장도 있다. 마을사람들은 다른 말로 밤굴·깊은굴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마을의 입구는 좁으나 북쪽에 위치한 법화산(法華山)으로 갈수록 깊은 계곡이면서 비교적 넓은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화산 중턱의 물푸레고개에는 예전에 '노래바굴'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조선시대 봉화를 올린 곳이라 전해진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봄에 돼지를 잡고 쌀을 씻어 그곳에서 놀기도 했다고 한다.

(2) 조사 방법

이 글은 앞에서 소개한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일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민속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쓰여진다. 따라서 본문은 구성면의 청덕1·2 및 기흥읍의 보라2·3리의 마을사람들이 살아온 민속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민속현상에 대한 서술은 종종 오래된 습관에만 그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오래된 습관은 현재(the present)라는 시점에서 보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나타난다. 그것은 실제 오늘날의 삶 속에서 전혀 실천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며, 실천은 되지 않지만 관념으로 남아 실천행위에 일정하게 관여하는 것도 있다. 또 기억으로만 남아 있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의례적 행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오래된 것도 존재한다. 따라서 민속에 대한 이해는 오래된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적 삶에서 관찰되는 문화적 규칙을 밝혀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한 지역의 민속지(ethnography)를 서술하는 데는 과거성보다는 현재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龍仁郡誌』, 용인군, p4.

10)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앞의 책』, p7.

특히 20세기말의 한국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온다. 이 과정에서 외견상 드러나는 공식적인 삶의 모습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마련이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외견상으로 드러난 과거에 천착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오래된 것에만 주목하는 과거형의 민속 서술에 민속지가 머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가능한 현재적 시점에서 출발하여 두 지구의 사람들이 어떠한 민속적 삶을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조사·서술되었다. 조사는 2000년 6월 30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1차 예비답사 및 2차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필자를 책임자로 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 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기간 중에도 사업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면접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¹¹⁾.

2) 조사 내용

두 지구에 대한 조사내용은 크게 마을의 민속과 집의 민속으로 구분하여 서술된다. 마을의 민속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연행하는 민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마을의 역사와 민속적 구성, 생업경제와 생활권역, 마을조직, 그리고 마을 의례가 그것이다. 집의 민속은 집안 내에서 행해지는 민속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몇 집을 설정하여 공간의 생활, 일상의 생활, 의례 생활로 나누어 서술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두 지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거와 오늘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1) 마을의 민속

가. 마을의 구성

구성면 청덕리는 북서쪽의 법화산과 동쪽의 향수산을 사이에 두고 난 계곡을 따라 서남방향에서 북동방향으로 길게 뻗은 지세를 하고 있다. 마을의 중간을 관통하는 내를 따라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 주변에는 밭과 논이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농촌마을이다. 청덕리는 행정적으로 청덕1리와 청덕2리로 나누어진다. 청덕1리와 청덕2리는 행정적으로 전체 마을의 중간에 위치한 약 600년쯤(주민들의 말) 된 느티나무와 마을버스 정류장을 경계로 하여 구분된다. 마을의 북쪽에 자리잡은 법화산(385m)은 그 줄기가 죽전과 능원으로 이어진다. 동쪽에 있던 향수산은 지금은 88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의 골프장으로 변해서 사람들은 산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청덕마을의 역사는 대체로 400여 년전에 법화산 북쪽의 능원에 있던 포은 정몽주의 후손들 중 일부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날 청덕2리에 해당되는 수청동에 자리잡은 영일정

11) 특히 민속조사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윤리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구성지구의 경우 필자를 비롯한 조사팀은 면접을 수행하면서 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사단에 포함된 대학원생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아울러 면접에 응해준 주민들의 이름도 가능한 별도로 밝히지 않기로 한다. 복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응해준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씨 포은공파의 지파인 주부공파(主簿公派)는 그후 경주이씨 문정공파와 전주이씨 무림공파 등과 혼인을 맺어 그 후손들이 덕수동 일대에 거주하면서 오늘날의 면모를 갖춘다. 해방 이전까지 청덕마을은 논농사·밭농사 그리고 법화산에 울창한 나무를 베어서 땀감장사를 하는 일에 주로 종사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청덕마을이 본격적인 현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신갈~새말(104Km) 사이에 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부터이다. 1971년 3월 24일 기공하여 같은 해 11월 30일에 완공된 이 구간 고속도로는 청덕마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의 대부분을 고속도로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이 마을의 생업경제를 바꾸어 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마을주민들 중에는 수원이나 서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두 번째의 큰 변화는 198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시행된 향수산의 골프장화였다. 1988년 골프장이 형성되면서 원주민의 이주와 외지인의 전입이 늘어났다. 그후 골프장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청덕1리의 마을 입구에 세워졌다. 이들 식당은 외지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사람이 운영하는 집도 있다.

현재 청덕1리는 70여 호 250여 명이며, 청덕2리는 270여 호 800여 명으로 이루어진다. 성씨별로는 영일정씨 포은공파의 지파인 주부공파(主簿公派) 자손들이 중심이 되며, 이외에 경주이씨 문정공파와 전주이씨 무림공파 그리고 다른 여러 성씨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영일정씨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지로 이주하여 살며, 지금은 특별한 집성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청덕마을을 구성하는 큰 건물들은 마을의 북쪽으로부터 용화사라는 절, 영일정씨의 재실인 청덕재(淸德齋), 그리고 윤섬(尹暹)·윤계(尹槩) 정려문, 산신당, 600여년의 느티나무, 버스정류장, 청덕2리 마을회관, 청덕1리 마을회관이 있다.

청덕2리 제일 북쪽에 자리잡은 청덕재(淸德齋)는 영일정씨의 포은공파의 지파인 주부공파의 재실이다. 원래 현재 위치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m에 있었으나, 1981년 다시 신축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건물은 주위에 시멘트 블록 담을 돌리고 솟을문을 두었다. 전사청(典祀廳)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전면에 마루를 배치시켰다. 전사청 안에는 스테인레스로 된 제기(祭器)와 모시로 만든 제복(祭服) 한 벌 등이 있다. 청덕재의 왼쪽 담에는 별도의 문이 있는데, 이곳으로 재실관리를 맡고 있는 영일정씨 포은공파 주부공파의 27대손의 집과 연결된다. 청덕재 오른쪽에는 용화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1980년대 후반에 원주민이 외지인에게 그 땅을 판 것인데, 그 자리에 절이 들어섰다. 마을사람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청덕1리와 2리를 구분하는 느티나무의 서쪽 구릉지에 위치한 윤섬(尹暹)·윤계(尹槩) 정려문은 조선 선조 때의 윤섬과 인조 때의 윤계를 기리는 비석이 정각 안에 위치하고 있다. 윤섬은 임진왜란 때 이 일 장군의 종사관으로 출정하여 상주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인조 23년(1645)에 이를 기려 이곳에 충신 정려문이 내려졌다. 윤섬의 손자인 윤계는 병자호란 때 전쟁에서 죽어 그의 충신됨을 기려 윤섬의 정려문이 내려질 때 함께 내려져 이곳에 정려문이 세워졌다. 원래 남원윤씨가 일부 이 지역에 살았으나, 지금은 살지 않고 윤염의 묘와 윤섬·윤계의 정려문만이 있다¹²⁾.

청덕2리 마을입구에서 서쪽으로 난 산에 산신당이 있다. 원래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당집이었는데,

12) 원래 윤행임의 묘도 이곳에 있었으나 2000년 4월 김포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 시멘트 블록으로 다시 지었다. 원래 당집 안에는 호랑이 그림이 한점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도난을 당했다. 현재 산신당 안에는 제기통에 제기와 기타 제사용품이 들어 있다. 청덕1리와 2리에는 각각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두 개 마을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청덕1리의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은 슬라브 2층 집으로 1970년대 후반에 지었으며, 청덕2리의 노인회관은 1990년대 초반에 지었다. 지금은 마을 노인들이 소일하는 장소로 쓰인다.

나. 생업경제 및 생활권

청덕리는 인근한 구성면의 소재지와 용인읍을 근린 생활권으로 수원을 원린 생활권으로 하는 곳이다. 마을사람들 중에서 30~40대 부인들은 인근의 서울우유 공장, 하마피역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또 경찰대학, 법무원 법무연수원, 88컨트리클럽 등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거나 청소원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인근에 분포하는 논과 밭에서 농업에 종사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에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법화산과 향수산 일대에 풍부한 나무를 베어 땀감으로 만들어 수원의 영동시장까지 달구지에 싣거나 지게에 지고 가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산림보호 정책이 실시되고 연탄이 공급되면서 땀감 판매는 경기를 잃어 농사짓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물건을 살 때는 주로 구성면에 있는 상설시장과 용인읍에 있는 상설시장을 많이 이용한다. 1960년대까지도 구성면 일대에는 정기적인 오일장이 없었다. 인근의 오일장은 용인읍의 5·10일로 끝나는 날에 열리는 용인읍내장과 4·9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모현면의 왕산리장이 있었으나¹³⁾ 그 거리가 너무 멀어 잘 찾지 않았다. 그래서 큰 시장은 주로 수원의 영동시장을 이용하였고, 신갈읍과 구성면 상설시장은 작은 시장으로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구성면에 '월마트(舊 마크로)'라는 전문상가에서 서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그것을 타고 공산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수용품을 마련한다든지 옷감을 장만할 때는 수원남문시장을 찾는다. 이때는 1시간에 한 차례씩 있는 수원역과 청덕리를 오가는 버스를 이용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분당이나 서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학교생활도 등급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유치원생은 구성면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며,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역시 구성면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신갈에 있는 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으며,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수원으로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아예 그곳에서 자취를 하거나 버스로 다니기도 한다.

예전에는 보통 집에서 혼인식과 회갑연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혼인식이나 회갑연은 대부분 구성면 농협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신갈에 있는 뷔페식당에서 한다. 장례식은 큰 병이 없을 경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큰 병이 있어 신갈이나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그곳 영안실에서 장례식을 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한다.

13) 주영하·전성현·강재석, (1995), 『한국의 시장-사라져가는 오일장을 찾아서 제1권 경기도·강원도·인천·서울편』, 공간미디어, p102.

다. 마을 조직

노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청덕리의 전통적인 마을조직으로는 두레가 있었다고 한다. 윗마을인 청덕2리와 아랫마을인 청덕1리에 각각 있었던 두레는 논농사를 서로 협조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었다. 주로 모내기 때 협동을 했다.

먼저 두레의 우두머리를 맡은 횡수가 모내기의 순서를 정한다. 순서가 정해지면 새벽 4시 무렵 모찌기부터 시작된다. 두레꾼들이 모이면 주인은 해장술로 막걸리를 권한다. 해가 뜰 때쯤 각자의 집에 돌아가 아침식사를 먹고 다시 나온다. 한두어 시간 일하면 주인은 새참으로 막걸리와 국수를 가져온다. 점심식사는 주인집에서 마련하고, 하루에 모를 심는 집이 여럿이면 제일 많이 심는 집에서 준비한다. 점심식사를 한 후 낮잠을 잔 뒤 다시 막걸리를 한잔씩 마시고 다시 논일을 한다. 오후 4~5시경 다시 새참을 먹는다. 보통 막걸리를 마신다. 저녁식사는 가장 힘든 일을 한 사람들만 주인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나 타작할 때는 양식이 넉넉하므로 모든 사람이 주인집에서 저녁식사를 먹기도 했다.

두레조직이 있을 때는 음력 정월 14일에서 19일 사이에 좋은 날을 잡아 윗·아랫마을 사이에 줄다리를 벌이기도 했다. 윗마을에서 풍물을 치며 아랫마을과의 경계에 있는 다리에 오면 아랫마을의 두레패가 나와 서로 풍물을 겨루었다. 만약 아랫마을이 풍물에서 더 나오면 윗마을 두레패는 아랫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때는 막걸리를 사서 바쳐야 해결되었다. 그러나 1971년 영동고속도로가 마을 앞에 놓이면서 농토가 줄어들면서 두레패는 사라졌다.

현재 청덕리에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이 있다. 청년회는 주로 마을청소, 여름벌초, 노인잔치, 마을정비 등의 활동을 한다. 운영기금은 자체회비와 인근에 있는 기관이나 사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꾸려간다. 정월에는 지신밝기 행사를 주관한다. 음력 10월 초하루의 산신제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한다.

라. 마을의례

청덕리에는 마을 장로회 계통의 덕수교회와 용화사라는 절이 있지만 마을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것은 아니다. 주로 불교와 샤머니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며,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는 드물다. 마을 공동으로 행하는 의례로는 산신제가 대표적이다. 주로 윗마을인 청덕2리가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데, 청덕1리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외지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많아 적극적이지 않다.

사실 용인시에서 전승되는 마을 공동체 의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1990년에 발간된 『용인군지(龍仁郡誌)』를 보면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로 모현면 초부리 하부곡, 용인읍 삼가리, 내사면 대대리가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당연히 청덕리에 산신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청덕리에도 산신당이 현존하며 산신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로 윗마을인 청덕2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이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산신당에서 행해진다. 산신당은 청덕2리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에서 서쪽으로 약 1km 오르면 있다. 산신당에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고, 산신당 못미처 샘이 하나 있다. 이곳에서 산신제 당일 쓰일 쌀을 씻고 밥을 안친다.

산신제가 있기 전 약 한달 전에 마을에서 가장 어른인 정제필(1927년생) 씨가 당주와 당주를 도와 줄 사람 2명을 뽑는다. 당주는 우선 사주를 보아 그해에 액운이 끼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정한다. 특히 집 안에 상사(喪事)가 있는지 젊은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주로 선정되지 못한다. 젊은 부부의 경우 부인이 달거리를 하거나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가 대변을 아무데나 보아 나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주를 정하면, 그 다음에 당주를 도와줄 유사를 2명 뽑는다. 이 일 역시 정제필 씨가 주관하여 당주와 의논하여 정한다. 유사 역시 당주와 같이 생기복덕한 사람이어야 한다. 뽑힌 사람들은 비린내 나는 음식인 생선이나 새우젓, 개고기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당주와 유사의 집 문설주 3군데 황토로 칠을 하고 원새끼로 금줄을 친다. 당주와 유사는 산신제를 지내기 전까지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가져도 안 되며, 아무나 그들의 집을 출입해서도 안 된다. 당주와 유사의 집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당주와 유사에 뽑힌 사람들이다. 또 당주와 유사는 산신제 날 1주일 전부터 집에서 찬물로 목욕재개를 해야 하며, 당주는 당집을 청소하고 샘물을 청소한다.

유사 중 한 사람은 산신제 날을 앞두고 이장과 협조하여 마을을 돌며 제비를 추렴한다. 이전에는 산신제를 모실 때 사용할 경비를 마을 공동의 논에서 마련했다. 매년 돌아가며 한 집에서 경작하여 그곳에서 수확된 곡식을 팔아 산신제 전체의 경비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 땅이 골프장 공사로 사라진 후에는 집집을 돌아가며 일정 금액을 추렴한다. 작년에는 한 집마다 약 2만원정도를 모았다.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쌀로 성의를 표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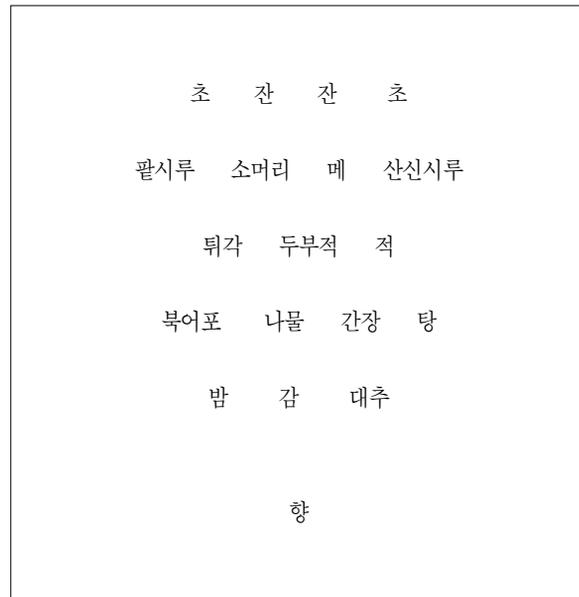
제비를 모은 후 유사는 산신제 이틀 전에 제물을 마련한다. 제물은 구성면에 있는 상설시장에 가서 산다. 제물로는 대추·밤·감등의 삼실과, 고사시루로 팔시루 서 말, 산신시루 백설기 서 되, 조라술 서 홉, 북어포, 나물, 탕, 튀각, 두부전, 적(炙) 등이 있다. 떡에 안칠 재료는 대부분 구입하지 않고 당주집에서 마련한다. 다만 멍쌀을 안쳤다가 방앗간에 가서 빻아온다. 조라술 역시 당주집에서 직접 담그는데 시장에서는 조라술을 담글 때 사용할 누룩과 누룩을 짤 때 사용하는 배보자기를 산다. 그리고 양초와 향도 구입한다. 또 두부, 북어포, 튀각, 적(炙), 나물에 쓰일 재료들도 시장에서 구입한다.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이다.

예전에는 소 한 마리를 통채로 마련했다고 한다. 그때 소는 순수한 황색에 수놈을 구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잡는 일 자체가 어려워 소 한 마리 대신에 소머리를 구성면 상설시장의 정육점에 미리 주문하여 마련한다. 메에 올릴 쌀은 당주 집의 햅쌀을 사용한다.

당주는 산신제가 열리는 당일날 새벽에 샘물에 가서 물을 떠와 산신제에 바칠 조라술을 담근다. 누룩과 쌀 서 되 서 홉을 넣어 술을 만드는데, 건넌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익힌다. 당에 오르기 전에 당주의 부인이 배보자기를 이용하여 삭혀진 누룩과 밥을 짜서 술을 내린다. 한편 당주 부인과 유사들 부인은 제물로 쓰일 음식들을 당일날 오전부터 준비한다.

산신제는 음력 10월 초하루 새벽에 산신당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당주와 유사2명과 정제필씨만이 참여한다. 음력 9월 그믐날 밤 11시경에 당주와 유사는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신당으로 오른다. 산신당 밑에 있는 샘물에 이르러 먼저 그 물로 쌀을 씻어 그 자리에서 밥을 짓는다. 메가 준비되면 그것을 함께 들고 산신당에 11시 40분경에 도착한다.

11시 40분경에 당에 도착해서 낮에 준비했던 장작에 불을 지핀다. 그런 후 당의 문을 열고 제기를



도 1. 청덕리 산신제 진설도

꺼내서 진설을 한다. 제물의 진설은 <도 1>과 같다.

진설이 끝나면 정제필씨의 호명에 따라 먼저 당주가 무릎을 꿇어 앉아 잔을 올린 후 절 4배를 올린다. 그후 당주는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유교식으로 작성되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다시 당주가 잔을 올린 후 절 4배를 하면 산신제는 끝난다. 그후 소지를 하는데, 마을소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개인소지를 한다. 원래 당주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했는데, 요사이는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린다.

산신제를 다 끝내면 철상을 하여 마을회관으로 내려온다. 마을회관에는 새벽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기다리며 술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으며 놀고 있다. 제사에 오른 제물들은 추렴을 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다.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산신제를 끝내고 나면 당주집에 무당이 와서 굿을 했다고 한다. 마을굿을 할 때는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풍물을 치며 놀았다고 한다. 또 귀신풀이라고 하여 “술령술” 하면 “우”라고 외치며 1년 동안의 안녕을 축원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굿을 하지 않고 산신제만 지낸다.

(2)집의 민속

가. 공간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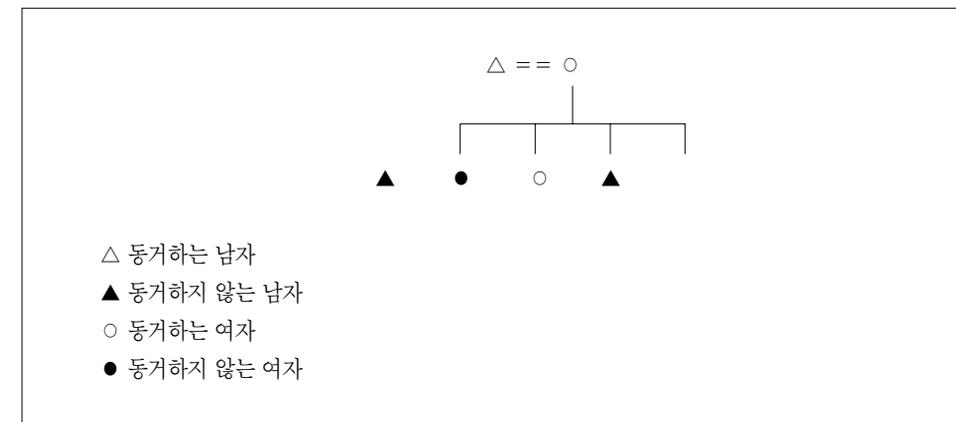
경기도 남부의 전통적인 살림집의 구조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전통 살림집의 구조는 우리 나라 모든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시대별 유형

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¹⁴⁾. 그 중에서도 빠리집과 ‘ㄷ’ 자집 및 튼 ‘ㄹ’ 자집은 내륙 경기도에서 두루 볼 수 있는 살림집의 구조이다.

그러나 청덕리에 소재하는 전통적인 집들은 대부분 ‘ㄱ’ 자형 집이거나, ‘ㄱ’ 자형 윗체에 ‘역ㄱ’ 자형 아랫채를 두는 구조가 주류를 이룬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아랫채에 부속건물을 설치한 집들도 많다. 그런데 전통적인 구조를 가진 집들은 대부분 단출한 경제규모로 인해 구조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집들이 드물다. 또 대부분의 가옥 내 공간은 가족규모의 축소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며, 창고 혹은 사용하지 않는 빈공간으로 남아 있다.

‘ㄱ’ 자형 집으로 대표적인 집은 청덕1리의 임명순 가옥이다. 임명순(여, 1929년생)은 청덕리에서 태어나 같은 마을 출신인 남편 김산성과 1947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병으로 일찍 죽었고, 현재는 혼인한 후 별거 중인 딸과 세 식구가 살고 있다.

임명순의 가옥은 안방을 중심으로 하여 왼편에 부엌이 있으며, 대청을 사이에 두고 건넌방이 있다. 안방에는 임명순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안방에는 텔레비전과 장롱이 있으며, 살림은 매우 단출하다. 건넌방에는 딸이 머무는 곳인데, 이곳 역시 살림도구는 간단하다. 대청에는 찬장이 놓여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을 보관하지 현재 사용하는 물건이 놓여있지 않다. 냉장고도 없다. 부엌에는 원래 가마솥이 두 군데 걸려 있었으나, 연탄보일러로 시설을 바꾼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엌은 현재 연탄보일러 시설만 갖추고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장만은 대청마루의 한켠에서 이루어진다. 음식



도 2. 임명순 가계도 및 공간활용 정도

의 마련과 세척은 마당의 수도 있는 곳에서 한다.

남의 농사를 소작하다 10여 년전부터 축사를 마련하여 소를 두 마리 키웠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축사는 연탄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된다. 부엌과 연결된 안채 뒷편에 형성된 장독대에는 거의 대부분 비워 있고 간장과 된장만 담겨 있다. 대청 뒷편에는 텃밭이 형성되어

14) 김홍식(1998), 「주생활」, 『경기도 민속지 I. 개관편』, 경기도박물관, p205.

있는데, 이곳에서 부식거리가 되는 채소를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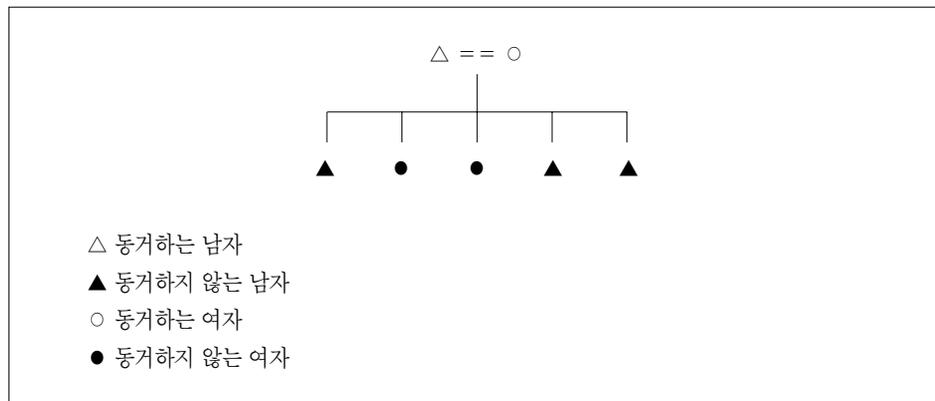
이에 비해 청덕2리의 이병희(남, 1930년생)의 집은 원래 '역'자형 집이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 집을 개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래 안방을 중심으로 부엌이 있었으며, 마루를 넘어 건넌방이 있었다. 지금은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여 방과 연결시켰으며, 마루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만들었다. 건넌방에 붙여 화장실과 창고를 별도로 더 붙였다. 아울러 대문 오른쪽에 방 한채와 욕실, 그리고 창고를 내어 세를 주고 있다. 그리고 마루 뒷편에는 장독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한데부엌을 별도로 구성해 두었다. 화장실은 1980년대 말에 수세식으로 고쳤다. 부엌은 입식으로 개조했지만, 가스레인지의 마당의 수도 옆에 내놓고 사용한다.

이병희 씨는 과거에는 농사일을 주로 하면서 겨울에는 땀감을 구하여 팔았다. 오늘날에는 약 150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다. 집에는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구가 있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으나 현재 모두 혼인하여 외지에서 살고 지금의 집에는 부부만이 살고 있다. 원래 이 집은 부부와 자식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된 2칸의 방이 있던 집이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성장함에 따라 창고를 헐고 방을 넓혔으나,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는 부부만이 집의 공간을 사용한다. 원래 자식들을 위해 집의 공간을 변형하여 확대시켰으나, 오늘날 자식들이 모두 혼인하여 외지로 나가고 없어 부부의 기본가족만이 공간을 이용한다. 자식을 위해 마련했던 별채와 같은 공간은 결국 세를 주는 형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나. 일상 생활

일상생활을 살피는 일은 주로 일상의 음식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일상음식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핵심을 관통한다. 여기서는 주로 일상의 음식을 통해 일상생활을 살핀다.

오늘날 청덕리 사람들의 일상음식은 한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밥과 반찬이라는 식단구조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밥은 주식이며 반찬은 주식을 먹는 데 보조적인 구실을 하기 위해 마련



도 3. 이병희 가계도 및 공간활용 정도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식인 밥이 쌀을 위주로 이루어진 때는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 이전에 항상 먹던 주식은 쌀과 함께 보리나 수수와 같은 것이었다.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수수·쭈·짚지·밀이삭·보리이삭으로 죽을 만들어 밥 대신에 먹었던 적도 많았다고 한다.

또 쌀이 없을 때는 밥이나 죽도 못 먹었으며, 그때는 보리개떡이나 쭈떡을 해먹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쌀이 비교적 풍족하여 밥하면 쌀밥이라 여겼다. 다만 1970년대 이후 점심식사로 밥 대신에 밀국수를 먹는 경우도 많다. 밀국수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온 마른국수이다. 일반적으로 쌀밥이 주식일 경우의 식단에서 반찬으로는 국과 김치가 주류를 이룬다. 겨울철에는 보통 미역국·무국·감자국을 많이 해 먹으며, 여름철에는 오이냉국이 뜨거운 국 대신에 자주 상에 오른다. 가령 이병희 씨 집의 여름철 식사의 일반적인 식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편 예전 여름철에는 주로 콩나물무침·짚지거리 등을 많이 먹었으며, 겨울철에는 짚지거리로 국을 하는 것과 청국장과 김치·깍두기를 즐겨 먹었다고 했다. 짚지는 무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것이다. 배추가 풍족하지 않았던 1960년대 이전에 배추김치 대신에 자주 담가 먹던 것으로 매우 짜다.

농촌지역인 청덕리 사람들의 식사형태는 크게 농한기와 농번기로 나누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아침식사를 한다. 10:30~11:00에는 새참을 먹으며, 점심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먹는다. 오후에도 새참이 있는데 보통 5시 전후에 이루어진다. 농번기 때의 저녁은 비교적 늦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간단하게 세면을 한 후인 7시에서 8시

쌀밥·오이냉국·배추김치·된장찌개·
새끼조기구이·콩나물무침·풋고추·된장

도 4. 이병희 씨댁의 여름철 식단의 예

사이에 먹는다. 농번기에 먹는 새참은 1980년대만 해도 고구마·막걸리·국수였지만, 요사이엔 라면과 맥주를 마신다. 오후 새참은 주로 막걸리 하나만 마셨다.

1980년대만 해도 농번기에는 일꾼들을 많이 썼다. 특히 타작을 하는 때는 새벽에 쌀을 뿔아 떡가루로 만든 만두나 생떡을 먹고서 타작을 나갔다. 식사 중간에 일꾼들에게 주는 새참은 국수나 수제비를 준비했다. 점심은 쌀밥과 김치, 그리고 막걸리를 마련했으며, 저녁 전에 준비하는 새참에는 막걸리를 내놓았다. 저녁때는 소주와 쌀밥, 그리고 돼지불고기나 삼겹살을 준비하여 일꾼들을 대접했다. 그러나 요사이엔 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별도로 일꾼을 부리는 경우가 드물어 새참을 특별히 마련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간혹 기계를 빌려 모내기나 타작을 할 경우에도 기계를 다루는 일꾼에게 별도의 참을 마련하지 않는다. 이때 점심은 집에 와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겨울 농한기 때의 아침식사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는다. 점심이나 저녁은 따로 때를 정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편이다. 농한기 때 노인들은 주로 노인정에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점심식사는 노인 정에서 먹는 경우가 많다.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은 쌀밥을 해 먹기도 하고, 국물이 있는 국수를 말아 먹기도 한다.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은 그때 그때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특별한 순번이 있지 않다. 할아버지들 역시 부인회에서 간단하게 해 놓은 밥에 반찬을 차려 먹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먹고 오는 경우도 많다.

요사이도 청덕리의 대부분의 집에서는 간장을 직접 담근다. 보통 집에서 만든 간장을 조신간장이라 부르며, 국이나 나물을 무칠 때 이 간장을 사용한다. 간장을 만드는 데는 콩으로 메주 만들기, 메주 띄우기, 간장 다리기, 된장 만들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메주를 만드는 시기는 보통 음력 10월경이다.

청덕리에서 김장을 하는 시기는 대체로 음력 10월 경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입동(양력 11월 7일 전후) 3~4일 전에 해야 채소의 낱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입동 후 따뜻한 날에 해야 김장김치가 빨리 시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장시기를 잘 잡아야 김장김치가 빨리 시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을 잡는 것은 개인별로 터득한 지혜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겨울 날씨가 예전에 비해 따뜻해져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시기가 날로 늦추어지고 있다. 보통 김장김치로는 배추김치·총각김치·깍두기·동치미를 담근다. 간혹 파김치를 담그는 집도 있지만, 이것은 최근에 생긴 풍습이다. 그중에서도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담근다.

다. 의례 생활

청덕리는 전통적으로 사머니즘과 유교식 의례가 주류를 이루는 마을이다. 이병희 씨의 경우 어릴 때 소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제사를 충실히 모시고 있다. 이 집의 제사는 일년에 총 10회이다. 기제사가 경주 이씨로서는 소종손이기 때문에 4대봉사로 총 8회가 있으며, 설날과 추석 때 차례를 모신다.

이병희 씨의 기제사는 보통 마루에서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기일제에 올리는 음식은 지짐(부치미)·두부·간랍·식혜·김치(빨강게 한 나박김치와 물김치)·간장·떡·산적과 함께 메(밥)과 떡을 올린다. 설날에 모시는 차례에도 기일제에 올리는 음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시절에 맞추어 많이 나는 과일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메 대신에 설날에는 떡국을 올리며,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1930년대까지 제기로는 유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1940년대 일제말기에 공출을 당한 후에는 나무로 된 제기를 주로 사용했다. 해방 후 다시 유기로 만든 제기를 오일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했지만, 연탄이 보급된 이후에는 유기가 쉽게 녹이 끼었기 때문에 마루나 사랑방에 보관한 집도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스테인레스로 된 제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된 제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목기 제기세트를 구입해 와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제사에는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 셋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에 사는 장남은 참석은 하되 자정에 제사를 모신 후 직장 관계로 곧장 서울로 올라가 버린다.

이병희 씨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1985년)까지는 집안에 성주신령과 장독대에 터주신령을 모셨다고 한다. 또 3년마다 한번씩 집안에서 재수굿을 하기도 했단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본

인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굿도 하지 않는다. 청덕리 마을에서 터줏가리를 모시는 집들이 거의 없는 것은 193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산신제는 유교식으로 거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본 글은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일대의 민속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보고서의 성격상 필자는 조사지역 내에 현존하는 민속현상에 주목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조사지역은 시간상의 차이를 두고 주변부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토박이들이 외지로 이미 이주하였고, 그 자리를 외지인들이 전입해 있는 상태라 마을 공동체의 민속이 우리 나라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전통적인 살림집 구조는 아예 없어졌든지, 아니면 개조를 거듭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점은 눈에 띄는 오래된 민속으로 보여진다.

청덕리에서는 산신당과 산신제가 그 동안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사실로 주목을 끈다. 민속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용인시 지역에서 산신제가 시행되는 예는 보고된 사례도 매우 적은 편이다. 1990년에 출판된 『龍仁郡誌』에 일부 소개되어 있으며, 1999년에 출판된 『경기민속지Ⅱ.민간신앙』에는 원래 소개된 바 있던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의 산지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¹⁵⁾. 그러나 기존의 자료에서 청덕리의 산신제를 서술한 것은 본 보고서가 처음이다. 다만 조사기간이 촉박하여 면접에 의해서만 산신제의 모습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신제가 거행될 때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성을 느낀다.

아울러 영일정씨 포은공파의 지파인 주부공파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청덕2리의 경우 청덕재라는 재실이 남아 있어 마을 내에서의 집성 활동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특히 영일정씨가 이곳에 집거한 이후 경주이씨 문정공파와 혼인관계를 맺어 두 성씨가 혼합하여 집성촌을 이룬 것은 조선 중기 이전 유행했던 서류부가(摺留婦家) 제도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사례가 된다. 다만 종손이 외지에 사는 관계로 더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경기도는 서울외곽으로서 그 면모를 바꾸어가고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개발정책은 기존의 농촌구조를 도시화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어난 분당·일산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결국 경기도 전역을 신도시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위한 민속조사는 사라질 마을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연구자의 심리적·철학적 문제는 이러한 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런 면에서 이미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었던 이 지역의 민속은 결코 과거형일 수 없다.

15) 김종대, (1999), 「경기남부의 마을신앙」 『경기민속지Ⅱ.민간신앙』 경기도박물관, pp.259~270.

IV. 맺음말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은 모두 8개소로 고고유적 1개소, 유교유적 5개소, 기타유적 2개소이다.

고고유적은 1개소만이 확인되었는데 조사전의 기대에 비해 매우 실망스런 결과였다. 더욱이 확인된 유물산포지도 경작과 주택의 신축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후속조사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에 원래 유적이 입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형변경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의 저지대 대부분은 1m 이상 복토가 되어 있고, 구릉지대도 외지인의 유입에 의해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지형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안에는 주택단지를 세우기 위해 땅을 파헤치거나 복토한 흔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현재 구성지구내에는 서북쪽의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형이 크게 파괴되거나 변경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구성지구내에는 후속조사가 필요한 고고유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가 하절기에 진행되어 무성한 수목에 의해 지표의 관찰이 어려웠고, 지표조사의 한계상 100%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없으므로 차후 개발이 진행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유교유적은 남원 윤씨묘역 3개소와 남원윤씨 정려문이 조사되었다. 남원 윤씨묘역은 현재 조사지역의 경계점에 위치하는데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아 분묘개장이 이루어지면 전문가의 입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 윤씨 정려문은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해야 될 것이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조사지역에 입지한 마을에 대한 민속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산신제가 행해진다는 자료는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민속 자료이다. 조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면접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산신제가 거행 될 때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신제가 행해지는 산신당과 영일정씨 주부공파의 재실인 청덕재는 비록 현대에 건립된 것이기는 하나 마을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건물로 마을주민과 후손들과 협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기타유적으로 조사된 느티나무는 마을의 상징물과 노거수로의 가치가 있으므로 보호수로 지정하고 외과수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 및 향후 방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연번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면적	향후방안
1	청덕리 유물산포지	조선시대	청덕 1리	약500평	추가조사불필요
2	윤염묘소	조선시대	청덕 1리	약30평	분묘개장시 입회
3	윤행엄 묘소	조선시대	청덕 1리	약30평	분묘개장시 입회
4	처녀윤씨묘소	조선시대	청덕 1리	약30평	분묘개장시 입회
5	남원윤씨정려문	조선시대	청덕 1리	.	이전
6	청덕재	현대	청덕 2리	.	이전
7	산신당	현대	청덕 2리	.	이전
8	노거수	.	청덕 1리	.	보존

寫真



사진 1. 구성지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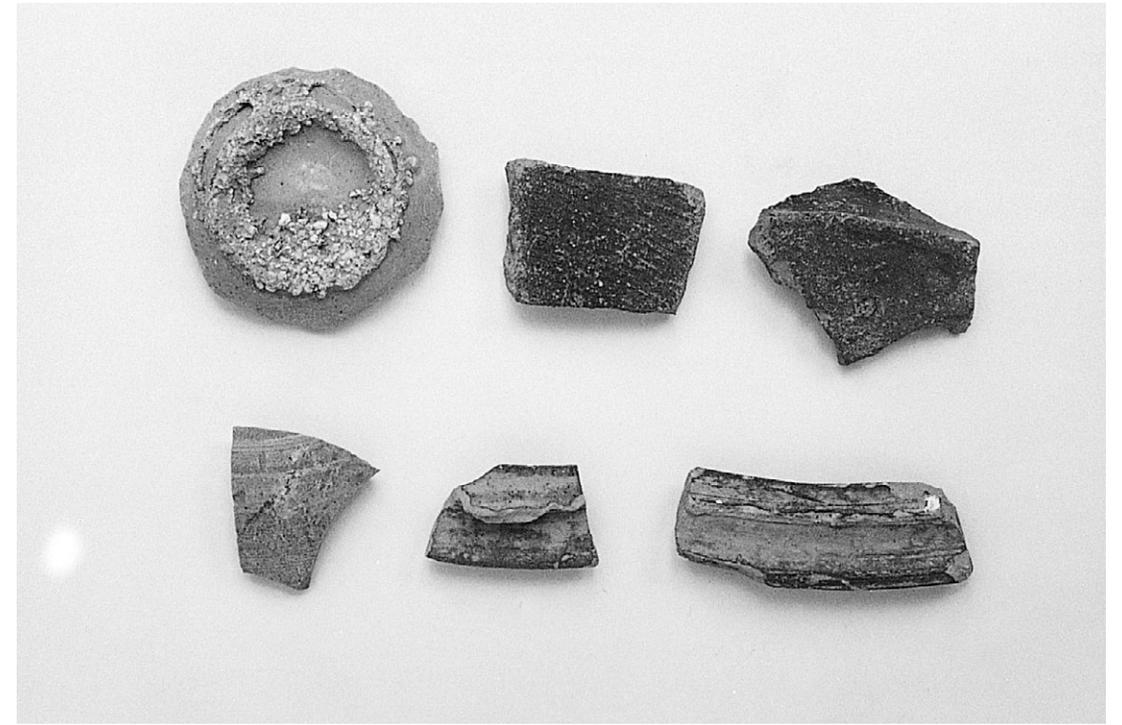


사진 3. 청덕리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2. 청덕리 유물산포지 1 전경



사진 4. 윤염 묘소 전경



사진 5. 윤염 묘소 고석과 향로석



사진 7. 윤염 묘소 석양



사진 6. 윤염 묘소 장명등



사진 8. 윤염 묘표



사진 9. 윤엄 계배 한양조씨 묘표



사진 11. 윤행엄 묘표



사진 10. 윤행엄 묘소 전경



사진 12. 처녀 윤씨 묘소 전경



사진 17. 청덕재의 전사청



사진 19. 청덕2리 산신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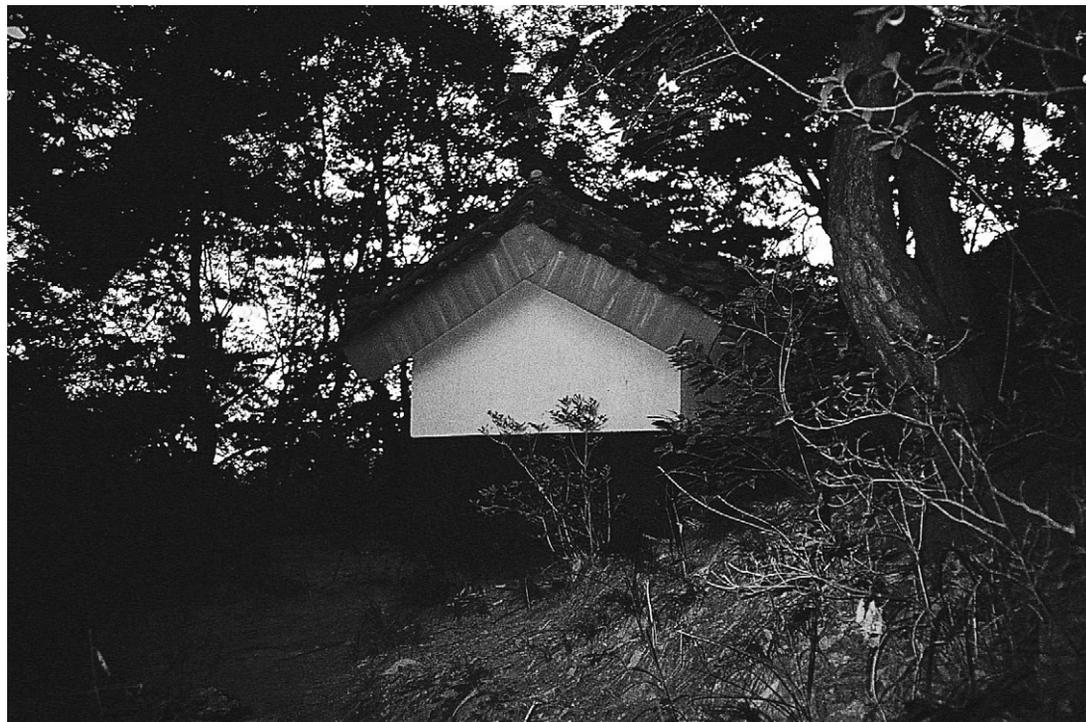


사진 18. 청덕2리 산신당 측면



사진 20. 청덕2리 산신당 및 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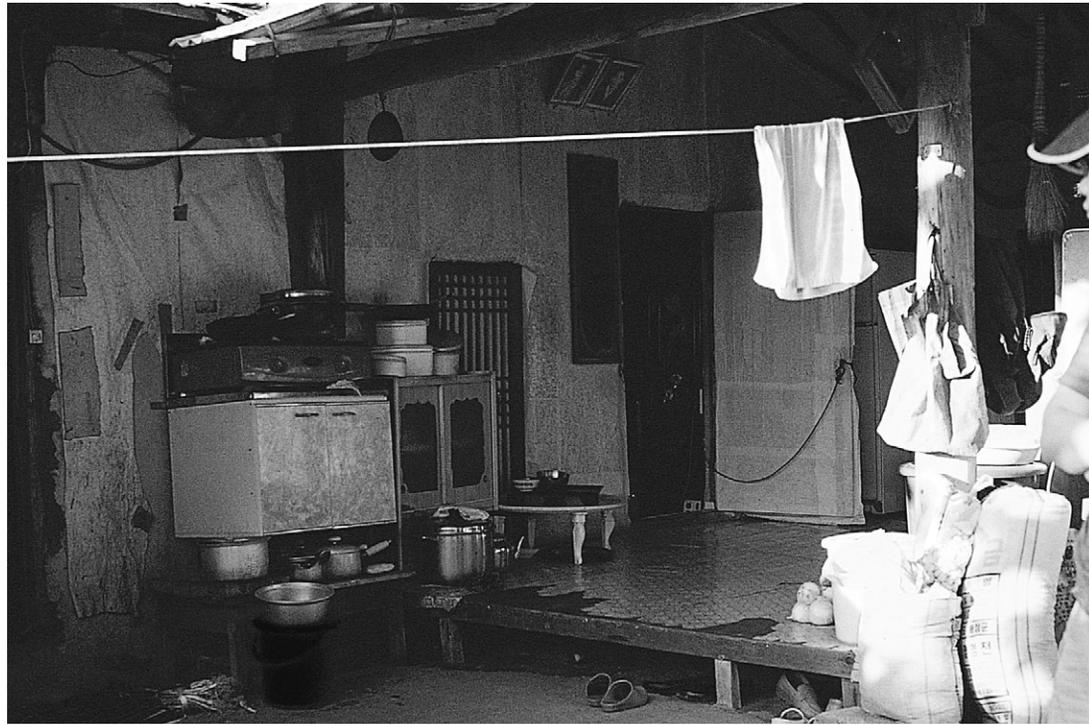


사진 21. 임명순 가옥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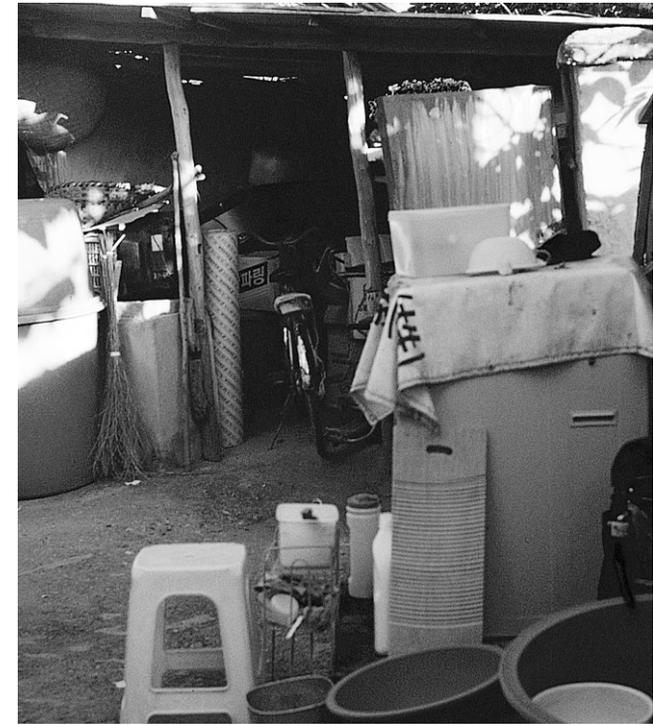


사진 23. 임명순 가옥 수도와 세탁기



사진 22. 임명순 가옥 건넌방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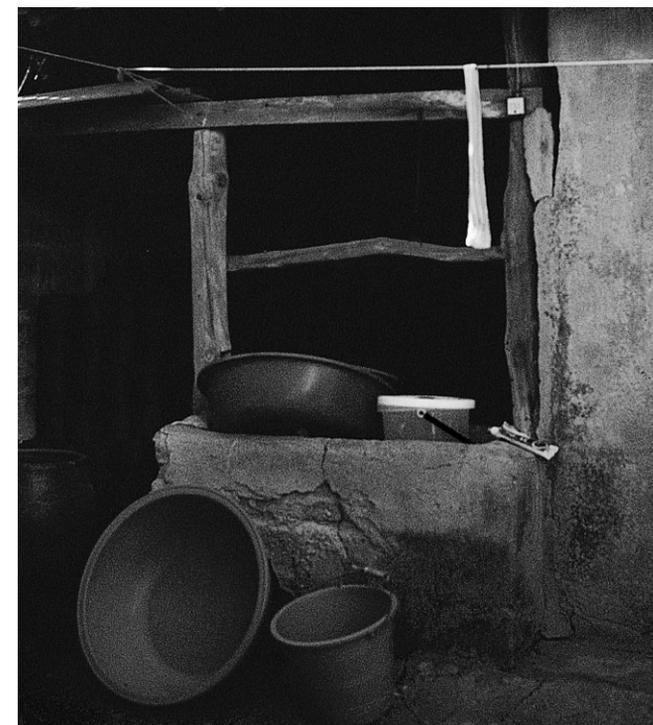


사진 24. 임명순 가옥 창고(원래 축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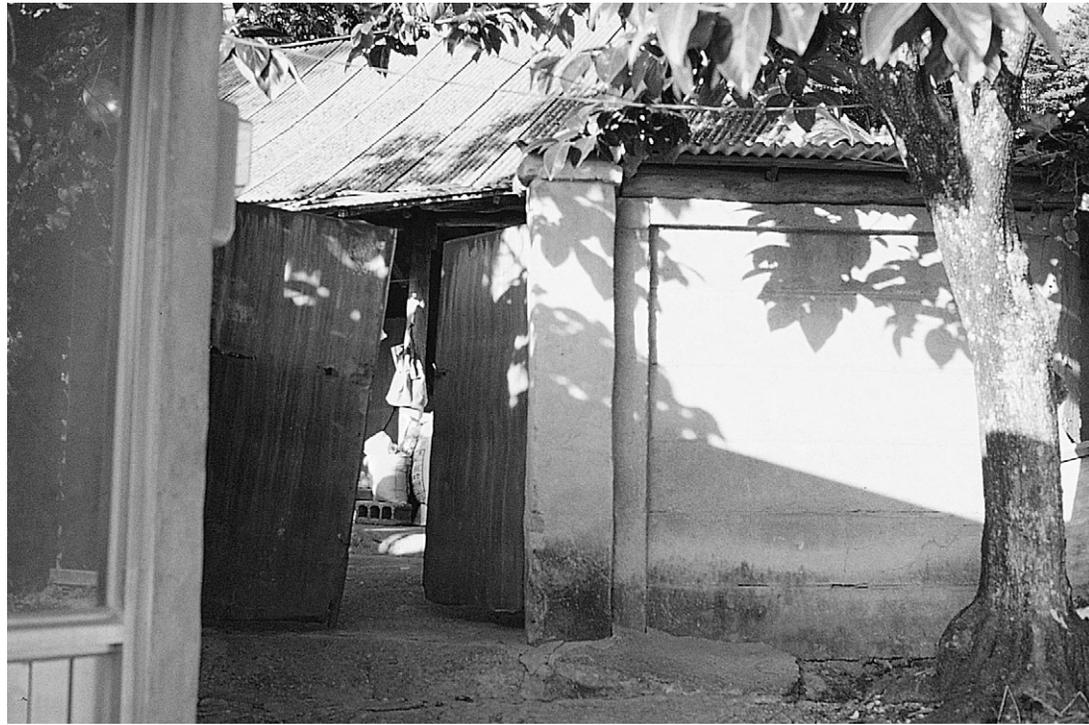


사진 25. 임명순 가옥 대문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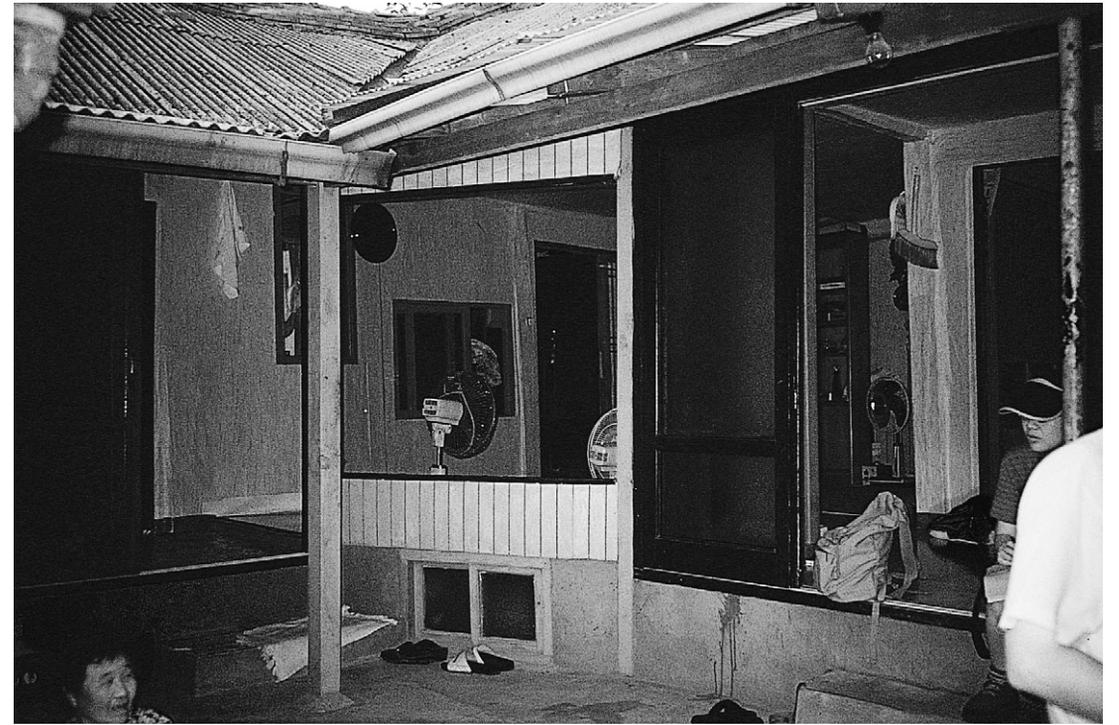


사진 27. 이병희 가옥 정면



사진 26. 임명순 가옥 대청마루 뒷편의 농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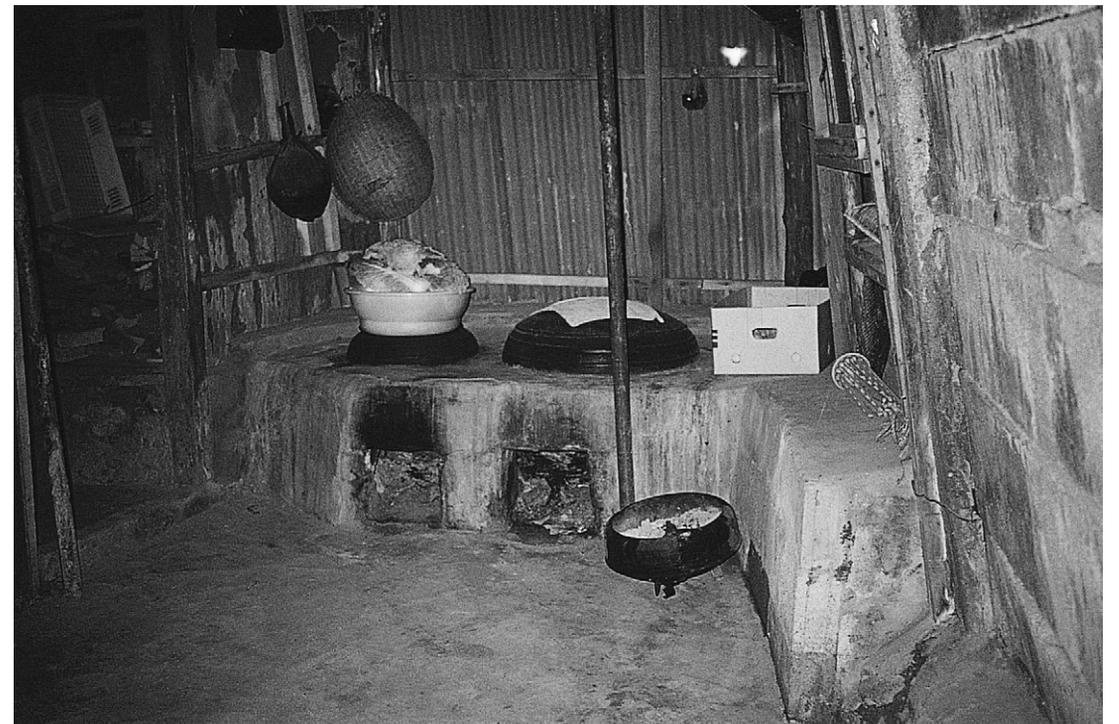


사진 28. 이병희 가옥 부엌



사진 29. 이병희 가옥 뒷면

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龍仁 駒城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發行日	2000年 8月 22日	
發刊機關	名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住所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TEL	(031)258-5105	FAX	(031)258-7116	
執筆·編輯者	張慶浩, 金性泰, 周永河, 蘇相永, 李敏植				
調査緣由	龍仁市 駒城面 清德里 一帶가 宅地開發地區로 指定됨에 따라 破壞의 憂慮가 있는 文化財의 確認과 後續措置를 위한 基礎資料提供				
調査擔當者	金性泰, 周永河, 蘇相永, 李敏植				
遺蹟所在地	京畿道 龍仁市 駒城面 清德里 一帶				
調査面積	1,252,000㎡(378,730평)				
遺蹟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遺物散布地	朝鮮	1個所	白磁 外		
南原尹氏墓苑	朝鮮	3基	長明燈 外		
南原尹氏旌閭門	朝鮮	1基	·		
清德齋	現代	1基	·		
山神堂	現代	1基	·		
老巨樹	·	1基	·		

學術調查報告 8冊

龍仁 驅城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2000年 8月 22日 印刷
2000年 8月 22日 發行

編輯：畿甸文化財研究院
發行：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 fax 031)258-7116

印刷處：京畿出版社
住 所：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